

국어 실력은 실전 감각이 좌우합니다.

국어 실력을 탄탄하게 다지고 싶다면
국어 영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독서는 어느 문단을 집중해서 읽으면 좋을지,
문학은 어떤 경향의 작품이 출제되는지,
문법은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구성되어 나오는지
각 영역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비로소 국어 영역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가 국어 영역이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 전국연합학력평가와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을 고스란히 모았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해설편에서 맞은 이유와 틀린 이유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자이스토리는 지문을 자세히 분석하여 필요한 개념을 콕 집어내고
선택지의 근거를 한눈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학습 요소를 곳곳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무엇을 묻는 문제인지 설명해 주고 정답인 이유와 오답인 이유를
꼼꼼하고 친절하게 해설해 두었습니다.
해설을 잘 활용하면 국어 1등급에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와 함께 국어 1등급을 향해 갑시다!

- 대한민국 No.1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13일]

- ★ 최근 3개년 학력평가를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 ★ 실전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춰 꾸준히 풀면 국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Day	회차 및 쪽수	틀린 문제 / 헛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01 회-10~29p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2	02 회-30~49p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3	03 회-50~69p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4	04 회-72~91p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5	05 회-92~111p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6	06 회-112~131p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7	07 회-134~153p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8	08 회-154~173p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9	09 회-174~193p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10	10 회-196~216p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11	11 회-217~236p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12	12 회-237~256p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13	13 회-258~277p - 문법·어휘 완성 TEST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년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비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를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자이스토리는 내신 +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모의평가,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공보윤 화성 와우고등학교
권하라 서울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노승연 서울 수명고등학교
문지혜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배지은 서울 창동고등학교

이동훈 청주 단재고등학교
이세영 수원 수일고등학교
제민지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조연원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최보라 과천 과천고등학교

최슬지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최용창 남양주 심석고등학교
최정현 남양주 오남고등학교
최혜민 서울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최신 기출문제
동영상 강의



한보람 선생님

[특별 감수진]

강지수 부산 해운대수수능국어
김경민 서울 갈무리국어학원

박윤선 광주 규장각국어학원
석정환 제천 메이킹입시연구소학원

장병권 일산 임경미국어학원
황은경 남양주 덕소고등학교

[감수진]

가유림 안산 이레국어논술
강신석 양평 우리동네국어 쌤
강연구 춘천 페르마학원
강채원 인천 신송고등학교
곽동훈 서울 (송파)곽동훈국어
곽승협 울산 지렛대국어학원
구찬미 의정부 맨투맨학원
권민서 서울 연하늘국어학원
김가연 서울 (강북)아이비학원
김낙광 부산 직관과통찰국어
김상언 마산 양덕여자중학교
김성욱 울산 신정고등학교
김세하 부산 한솔플러스영수학원
김용호 울산 호빵국어논술학원
김윤정 남양주 그윽정국어
김정은 부산 한양학원(사하점)
김지영 서울 썬아카데미
김현 서귀포 서울답텐학원
김혜리 안양 안양여자고등학교
김효성 천안 천안고등학교
박경희 대전 효이박경희국어전문학원
박동민 인천 역전타에듀학원
박상준 부산 필(必)통(通)국어학원
박신혜 천안 천안서울학원
박영민 고양 이지베스트학원
박용희 서울 봄봄국어
박유진 화성 파란국어전문학원
박종문 파주 (운정)원플러스학원

박청명 울진 청명한국어교습소
박태순 서울 참좋은학원
박현규 서울 영훈고등학교
박현정 대구 더나은국어교습소
배성현 인천 국어논술자신감
백단비 서울 (목동)한얼국어논술학원
백승수 서울 올빼미국어
송예림 남양주 청학고등학교
신창근 고양 (일산)대세국어학원
안보람 서울 보람국어
안혜지 부산 다이나믹학원
엄다혜 인천 (송도)국어의정원
우영미 인천 (송도)자이하버부국어
유성철 부산 HQ영수학원
유시준 서울 강수학과한국어학원
윤재식 시흥 아이비스국어학원
이대건 서울 (대치)메이드세이노학원
이석호 군포 이석호국어학원
이성룡 광주 고려중학교
이수영 부산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이승준 창원 한일여자고등학교
이신주 인천 불사조학원
이우진 화성 병점고등학교
이은정 광주 (수원)날개달기국어학원
이정숙 서울 아이비에듀
이흥진 서울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임수민 파주 해원국어학원
임진화 철원 가우스학원

임효윤 인천 인천외국어고등학교
장수정 대구 대구남산고등학교
장창수 대전 바로이학원
정다운 인천 갈루아수학학원
정지윤 안양 (평촌)봉샘국어학원
정현진 파주 제니스학원
조민수 대전 둔산마스터학원
조민지 춘천 밍샘국어전문학원
조상경 파주 운정고등학교
조상미 대전 탑앤성진학원
조영숙 서울 책속에서길을묻다독서토론논술교습소
차장우 부산 차샘국어
채옥희 광주 본국어
최강 대전 미담국어논술학원
최성진 서울 대치SKY3.0학원
최소형 하남 꿈자락국어
최인호 서울 우신고등학교
최진욱 군포 옥샘국어학원
최한나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최현애 화성 플랜A입시학원
하성협 화성 청계중학교
한광희 세종 한샘국어
한다희 남양주 청학고등학교
한지윤 서울 한서고등학교
허호정 남양주 일등급국어영수학원
홍정의 남양주 광동고등학교

차례

I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회 모의고사 – 2025년 3월	10
문법·어휘 완성 TEST	29
2회 모의고사 – 2024년 3월	30
문법·어휘 완성 TEST	49
3회 모의고사 – 2023년 3월	50
문법·어휘 완성 TEST	69
동아리 소개/서울대 TNT	70

II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4회 모의고사 – 2025년 6월	72
문법·어휘 완성 TEST	91
5회 모의고사 – 2024년 6월	92
문법·어휘 완성 TEST	111
6회 모의고사 – 2023년 6월	112
문법·어휘 완성 TEST	131
동아리 소개/서울대 Caffe 人	132

III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7회 모의고사 – 2025년 9월	134
문법·어휘 완성 TEST	153
8회 모의고사 – 2024년 9월	154
문법·어휘 완성 TEST	173
9회 모의고사 – 2023년 9월	174
문법·어휘 완성 TEST	193
동아리 소개/고려대 KUAAA	194

IV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10회 모의고사 – 2024년 10월	196
문법·어휘 완성 TEST	216
11회 모의고사 – 2023년 12월	217
문법·어휘 완성 TEST	236
12회 모의고사 – 2022년 11월	237
문법·어휘 완성 TEST	256

V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13회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258
문법·어휘 완성 TEST	277

어휘 총정리 278

빠른 정답 찾기 288



등급컷

I 3월 전국연합

1회 [2025년 3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4	135
2	76	126
3	67	116
4	58	106
5	48	95
6	39	85
7	30	74
8	21	64

II 6월 전국연합

4회 [2025년 6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6	136
2	76	127
3	65	116
4	54	105
5	42	93
6	31	83
7	23	75
8	16	68

III 9월 전국연합

7회 [2025년 9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1	136
2	72	126
3	62	116
4	52	105
5	41	93
6	31	83
7	23	74
8	18	69

IV 10월 전국연합

10회 [2024년 10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9	136
2	80	128
3	68	117
4	55	105
5	40	92
6	29	82
7	22	76
8	15	70

2회 [2024년 3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91	131
2	85	125
3	77	117
4	67	107
5	55	95
6	44	84
7	34	74
8	24	64

5회 [2024년 6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7	134
2	79	126
3	69	117
4	58	106
5	45	94
6	33	82
7	23	73
8	18	68

8회 [2024년 9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7	136
2	78	127
3	67	117
4	55	105
5	42	93
6	31	82
7	23	75
8	18	70

11회 [2023년 12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8	134
2	80	127
3	69	117
4	56	106
5	41	92
6	29	82
7	20	74
8	17	71

3회 [2023년 3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95	131
2	89	125
3	81	117
4	70	107
5	58	95
6	47	84
7	36	74
8	25	63

6회 [2023년 6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7	136
2	78	127
3	68	116
4	57	105
5	46	94
6	36	84
7	27	74
8	21	68

9회 [2023년 9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4	135
2	76	127
3	65	116
4	54	105
5	41	93
6	30	82
7	22	74
8	18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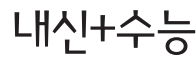
12회 [2022년 11월 시행]

· 나의 점수 : ()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88	134
2	80	126
3	70	117
4	59	107
5	45	94
6	33	82
7	23	73
8	17	67

13회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나의 점수 : ()

- ❖ 자신의 점수를 기록하고, 해당 등급에 check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전국 단위로 비교해 보세요.
- ❖ 등급컷 구분 원점수는 실제 점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등급

1위

전국연합학력평가
[2025년 3월 26일 시행]

국어 영역

★ 3월 문항에만 정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문항 수 : 45개

• 배점 : 100점

• 제1차 시간 : 80분

[illegible]

1회 문법 · 어휘 완성 TEST	• 문항 수 : 4개 • 제한 시간 : 5분
01. 11~12번 연계 문제 (보기)를 참고하였을 때 밑줄 친 말이 보조 용언이 아닌 것은? (보기) 용인 중에는 후자가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반대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03. 15번 연계 문제 (보기)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이시옷은 표기하더라도 합성의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시작될 때는 붙여 써야 한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기가 침체되어 가는데 소비가 줄어들면 시장의 제품이 팔리지 않아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그 결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경기 침체가 확대되면 소비는 이어서 벗어나기 위해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재원을 손실 없이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입체 침삭 해설〉

* 소설

① 중심인물, 배경

소설의 중심인물과 사건이 펼쳐지는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② 중심 사건, 갈등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과 갈등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③ 서술상 특징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서술상 특징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 장면 요약

■ 이 작품은?

중요한 작품이거나 해석이 어려운 작품의 경우 해당 작품의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 인물 관계도

■ 인물 관계도

입니다.

① 중심인물, 배경

소설의 중심인물과 사건이 펼쳐지는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② 중심 사건, 갈등

소설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과 갈등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③ 서술상 특징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서술상 특징이 드러난 부분에 표시했습니다.

* 장면 요약

■ 이 작품은?

중요한 작품이거나 해석이 어려운 작품의 경우 해당 작품의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 인물 관계도

■ 인물 관계도

입니다.



[독서·화법·작문·문법]

<입체 첨삭 해설>

글 전체 핵심어
지문 전체의 핵심어를 표시했습니다.

글 전체 중심 문장
글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문장을 알려 줍니다.

지문 어휘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휘를 쉽게 풀이했습니다.

문단 요약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적인 지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이해도
지문의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내용 풀이
출제 요소에 해석을 달아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제의 근거도 한눈에 파악하게 했습니다.

지문 내용과 구조
지문의 내용과 주제 등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또 지문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조화 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글의 제목
지문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글의 제목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제 유형 분석
문제 유형을 제시하여 수능형 문제 유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답률

선택률

학생들이 많이 헷갈렸던 선지를 밝혀주기 위하여 선지별 선택률을 수록하였습니다.

왜 틀렸나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단서+발상

단서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를 꼭 짚어 설명합니다.

발상 핵심 단서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결합니다.

적용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 적용해야 할 내용입니다.

해결 단서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정답?
정답이 되는 이유와 다른 오답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문제 풀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거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16~21

(가) 국가의 통치 방법에 대한 관중의 견해

관중은 춘추 시대 제(齊)나라의 재상으로 군주인 환공을 도와 약소국이던 제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성장시켰다. 관중이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과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은 (관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살던 현실의 문제에 실리적으로 (가) 대처하고 정치적인 분열을 적극적으로 막아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을 이루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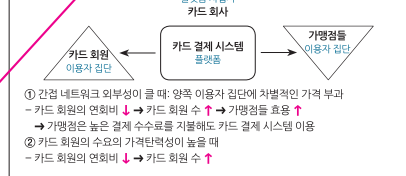
실리적: 실제로 이익이 되는

* (가) 문단 요약: 관중이 생각한 통치 방법과 목적
(가) 관중은 권세를 가진 군주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 즉 (패업) (覇業)을 위한 통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때 군주는 능력 있는 신하를 공정하게 등용되 신하들이 군주의 권세를 넘보거나 갑질서를 존경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하며 백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중의 사상은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가) 문단 요약: 국가의 통치 방법에 대한 관중의 견해와 그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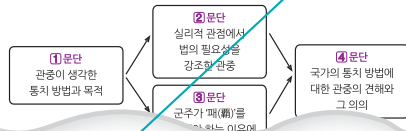
전체 지문 이해도

플랫폼 사용자의 가격 결정의 예



지문 내용과 구조

① 문단	관중이 생각한 통치 방법과 목적 현실 문제의 실리적 해결 → 나라의 부강과 백성의 평안
② 문단	실리적 관점에서 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관중 → 백성: 국가 경제의 근본, 군주: 법을 만들 수 있는 천부적 자격을 지님. → 법의 목적: 백성들의 윤락한 삶 → 부강한 나라의 실현
③ 문단	군주가 (패업)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 군주가 '패'를 실현함 → 백성들이 군주의 권세를 인정하게 됨 → 군주가 국가를 다스릴 수 있음.
④ 문단	국가의 통치 방법에 대한 관중의 견해와 그 의의 → 군주는 패업을 위한 통치 (= 부강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를 펼쳐야 함. → 의의: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자 법을 통한 통치를 도모함.



매력 오답
매력적 오답을 선택한 이유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26 정답 ① * 내용 파악 + 추론하기 [정답률 45%]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⑤의 특징과 역할을 뒷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틀린 학생들이 많았다. ①~⑤가 제시된 2문단의 내용과 함께 유형 기계의 작동 규칙과 작동 사례를 설명한 3, 4문단의 내용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단서+해결

(가) 율곡은 치세를 만드는 군주와 난세를 만드는 군주의 유형과 통치 방법을 나누어 설명했다.

(나) 왕도: 군주의 인격 완성 →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어 냄.
패도: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음 → 백성의 도덕적 교화를 이루어 내지 못함.
왕도와 패도는 태평한 시대인 치세를 만드는 통치 방법이다.

(해) 율곡은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군주의 통치 방법이 왕도와 패도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② 왜 틀렸나?

④ 율곡은 ①과 달리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왕도와 난세**가 구분된다고 보았다.

(나) (가) 문단 (가) 왕도는 군주의 인격 완성을 통해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 이루어 내는 것이고, 패도는 군주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아 백성의 도덕적 교화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백성의 경제적 안정은 이루어 내는 것이다.

율곡은 군주의 유형을 크게 치세를 만드는 군주와 난세를 만드는 군주로 나누었고, 그 중 치세를 만드는 군주의 통치 방법을 군주의 인격 완성 여부에 따라 '왕도'와 '패도'로 구분하였다.

② 왜 오답?

② 관중과 ①은 모두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오로지 군주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군.

(가) (가) 문단 (가) 관중은 ~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자 말아야 하며 ~ 하라 ~ (가) (가) 문단 그리고 법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군주만이 갖고 있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에서는 법을 위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군주만이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 관중 또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인 권세가 군주에게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해) 선택지의 표현과 (가)의 표현이 달라 헷갈린 학생들이 많았다. (가)에서 관중은 '군주는' 자신의 권세를 신하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고 했다. 이는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오로지 군주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경지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갈: 행
(1)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
예 길: 울퉁불퉁해서 자전거를 타기가 힘들었다.
(2) 걸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
예 길: 그는 과정을 수차례 걸고 고단한 여정이었다.

왜 오답?
오답 풀이를 통해 틀린 문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선택지 출제 원리까지 터득할 수 있습니다.

배경지식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배경지식을 제시했습니다.

QR코드
언어(문법), 독서
동영상 강의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국어 활용법+α

① 3, 6, 9, 10월별 문제 구성과 학습 전략을 파악!

- 국어 모의고사의 문제 구성을 파악해서 실제 시험에 대비하세요.
- 3, 6, 9, 10월별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학습 전략을 세워 보세요.



② 학력평가 시험 전에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 3, 6, 9, 10월에 치르게 될 학력평가를 대비해서 실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80분 동안 45문항 모의고사를 풀어 보세요.
- 쉬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기, 헷갈리는 문제는 표시해 두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보기, 지문을 구조화해서 요약하며 읽기 등 자신만의 문제 접근 방법과 시간 배분 방식을 만들어 나가세요.
- 실제 시험처럼 시작 전 가벼운 긴장감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지 생각하며 전략을 실행하세요.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을 미리 풀어 보면 수능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서 실제 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③ QR코드로 제공하는 독서·언어(문법) 해설 강의

- 교재에 수록된 모든 독서·언어(문법) 문제의 해설 강의를 QR코드를 통해 제공합니다.
- 문제를 풀고 채점한 후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문제의 해설 강의로 연결됩니다.
- 친절하고 자세한 해설 강의를 활용해서 언어(문법)·독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④ 언어(문법)·어휘 완성 TEST로 개념 마무리

- 문제 풀이만으로는 부족한 언어(문법) 개념 정리를 리뷰 테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므로, 모든 회차를 끝 한 후 꼭 언어(문법)·어휘 완성 TEST로 마무리하세요.

⑤ 어휘 총정리

- 국어 모의고사에서 어휘 문제는 고난도 문제가 아님에도 정답률이 낮은 문제입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국어도 모르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공부해야 합니다.
- 어휘 총정리에 제시된 어휘 풀이를 활용해 소홀하기 쉬운 국어 어휘 공부도 놓치지 마세요.



⑥ 쉽게 이해되는 압축 첨삭 해설로 다시는 틀리지 말자!

- 정답만 맞는지, 틀렸는지 보지 말고, 틀린 문제나 찍어서 맞은 문제 등은 꼭 다시 푸세요.
- 맞힌 문제도 해설을 읽으면서 자신이 맞게 이해하고 정답을 고른 것인지 확인하세요.
- 지문 근거를 확인하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세요.
- '왜 정답'과 '왜 오답', 정답과 오답에 대한 첨삭 해설을 보며 자신의 이해도를 점검하세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회별 45문항, 제한 시간 80분]

★ 최근 연도부터 차례대로 수록하였습니다.

1회 모의고사 — 2025년 시행

2회 모의고사 — 2024년 시행

3회 모의고사 — 2023년 시행

출제 범위 중학교 전 범위

난이도

하: 13~14문항 중: 22~23문항
상: 2~3문항 최상: 4~5문항

3월 대비 학습 전략

중학교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력평가가 출제되기 때문에 지문과 문제는 비교적 쉬운 편이다. 지문과 문제를 정확히 읽고 선택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영역별 문제 출제 경향

영역	문제	출제 경향
화법과 작문 (10문항)	1~10번	- 학생의 발표와 한 편의 글을 작성하기 위한 학생들의 대화가 지문으로 출제된다. - 대화를 바탕으로 쓴 글과 작문 상황에 맞게 쓴 글이 출제된다.
문법 (5문항)	11~15번	음운 변동, 단어의 품사와 의미 관계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
독서 (15문항)	16~45번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영역 가운데 보통 3개 영역의 지문이 골고루 출제된다.
문학 (15문항)	사이	현대시, 고전 시가, 현대 소설, 고전 소설 지문이 골고루 출제된다.





전국연합학력평가 [2025년 3월 26일 시행]

국어 영역

※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문항 수 : 45개

• 배점 : 100점

• 제한 시간 : 80분

[01~0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릴 적 종이비행기를 접어 하늘 높이 신나게 날렸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종이비행기 날리기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세계 대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자료 1을 제시하며) 바로 이 비행기가 세계 종이비행기 대회 오래 날리기 종목에서 29.2초의 신기록을 세운 주인공인데요. 오늘은 이 세계 1등 종이비행기의 비밀을 파헤쳐 어떻게 접어야 비행기를 더 오래 날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자료 1을 가리키며) 이렇게 날개 면적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날개 면적이 넓을수록 양력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양력은 종이비행기가 공중에 뜰 수 있게 하는 힘으로, 비행기의 날개 윗면과 아랫면을 지나는 공기 흐름의 압력 차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날개 면적이 넓으면 날개와 접촉하는 공기량이 많아져 더 큰 양력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종이비행기가 공중에 더 오래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날개의 모양과 각도에 있습니다. 종이 비행기가 오래 날려면 공기 소용돌이 현상을 줄여야 하는데, (자료 1을 가리키며) 이렇게 날개 끝부분을 위로 접으면 소용돌이가 줄어들어 좌우 균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려 Y자 모양을 취하며) 날개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 접는 게 좋습니다. (자료 2를 가리키며) 날개가 수평선에서 위로 들린 각을 상반각이라 하는데, 종이비행기의 상반각은 이렇게 약 16°가 적합합니다. 그래야 비행 중 기울거나 흔들리는 현상이 줄어 더 오래 날 수 있거든요.

종이비행기를 오래 날리고 싶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날개 면적을 넓혀 양력을 크게 하고, 날개 끝을 위로 접고 상반각을 적절하게 만들어 비행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질문이 있군요. (청중의 질문을 듣고)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에 다른 종목은 없느냐고요? 멀리 날리기 종목과 곡예 비행 종목 등이 있습니다. 멀리 날리기용 비행기는 날개를 길고 좁게 접어 앞부분이 뾰족한 형태가 많은데, 이는 비행을 방해하는 힘인 항력을 줄여 비행 거리를 늘립니다. 그리고 곡예용 비행기를 접을 때는 좌우 날개의 모양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서 공중에서 방향 전환이나 회전을 쉽게 하도록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참고해서 나만의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끝없는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펼쳐 보세요. 다음 세계 종이 비행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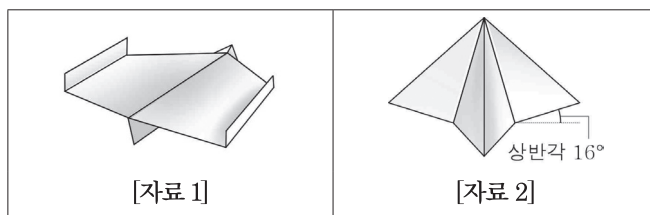
0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져 청중의 내용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 ④ 청중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청중에게 발표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0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료 1]을 활용하여 비행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자료 1]을 활용하여 비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종이의 두께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자료 2]를 활용하여 날개의 방향에 따른 공기 흐름의 압력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자료 2]를 활용하여 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날개 각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날개의 길이와 비행 거리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03

다음은 발표를 들으며 학생이 정리한 내용의 일부이다. ㄱ~ㅁ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오래 날리기용 종이비행기
 - 날개를 넓게 만들기 → 양력 증가 ㄱ
 - 날개 끝을 위로 접기 → 양력 감소 ㄴ
 - 날개의 상반각을 적절히 설정 → 균형 유지 ㄷ
- 멀리 날리기용 종이비행기
 - 날개를 길고 좁게 접기 → 항력 감소 ㄹ
- 곡예용 종이비행기
 - 날개 모양을 다양하게 접기 → 방향 전환, 회전 용이 ㅁ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04 ~ 07] (가)는 또래 상담부 학생들의 회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동아리 부장'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아리 부장: 오늘은 학생들의 고민에 대해 조언하는 글을 동아리 소식지에 쓰기 위해 회의하기로 했잖아. 누리집에 올라온 사연 중 학생들이 공감할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부원 1: 나는 '진로를 찾는 과정이 어렵고 막막해요.'라는 고민에 공감이 되더라고. 진로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소개해 주면 어떨까.

부원 2: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나도 '내 희망 진로가 뭘까?'라고 생각하면 막연하게 느껴지더라.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부원 3: 혹시 '커리어넷' 들어 봤어? 난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더라고. 무료로 진로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고.

부원 1: 나는 선배들을 통해 '어디가'라는 진학 관련 누리집을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꽤 많아.

동아리 부장: 정리하면, 진로나 진학과 관련된 정보는 '커리어넷'과 '어디가'를 참고하면 된다는 거구나. 친구들이 두 누리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면 좋겠다.

부원 2: 나는 '공부해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불안해요.'라는 고민이 눈에 띄더라. 뭔가를 성취하기 전에는 정체기가 와 힘들다던데, 나도 1학년 때 그런 시기를 겪었어.

부원 1: 그래?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 줄래?

부원 2: 목표를 크게 세워 노력해 보았지만 잘 안 되어서 지치더라고. 그래서 하루에 할 수 있는 만큼으로 목표를 작게 쪼개 보았어.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실력도 목표한 만큼 늘어 있더라.

부원 3: 네 경험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해 주면 좋겠다.

동아리 부장: 진로, 학업 이외에 다룰 만한 사연이 또 있을까? 친구 관계와 관련된 고민도 많던데, 이에 대해 다뤄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부원 3: 그럼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서 속상해요.'라는 고민을 다루면 좋겠어. 어떤 조언을 해 줄까?

부원 1: 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는지 상황을 먼저 되짚어 본 다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눠 봐야 할 것 같아.

부원 2: 내 생각에 이미 멀어진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부원 3: 친구를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가능할 것 같아. 친구와 관계가 멀어져서 속상하고, 친구의 생각도 듣고 싶다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지. [A]

부원 2: 그렇구나. 멀어진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말대로 하면 어렵지 않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 대화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

부원 1: 대화할 때는 공감하며 듣는 태도가 중요해. 친구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친구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동아리 부장: 논의해 보니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럼 내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오늘 논의한 고민의 순서대로 소제목을 달아 글을 구성해 볼게. 혹시 추가로 넣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

부원 3: 우리 동아리에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 주면 좋겠어. 아직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동아리 부장: 좋아. 다음 회의 때는 내가 쓴 글을 읽고 같이 고쳐 보자.

(나) **답답한 고민, 시원하게 풀어 드려요!**

설렘으로 가득 찼던 3월도 거의 지나고 4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래 상담부 부원들이 이번 달에 선정된 사연 세 가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해 조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진로를 찾는 과정이 어렵고 막막해요.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커리어넷>에 접속하여 진로 심리 검사를 받아 보고,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직업 관련 정보를 추가로 탐색해 보면 좋아요. 그리고 해당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진학 정보는 <어디가>에 있으니 접속해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2. 공부해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불안해요.

'동트기 전 새벽이 제일 어둡다.'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나요?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전에는 때때로 마음처럼 되지 않는 정체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 또한 동트기 직전의, 가장 어둡고 추운 정체기 상황일 수 있어요. 당장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답답하다면 목표를 작게 쪼개서 매일 작은 성취감을 느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해 있을 거예요.

3.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져서 속상해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는지 상황을 차분히 되짚어 본 후에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게 좋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너와 관계가 멀어져서 속상해. 네 생각은 어떤지 말해 주면 좋겠어."라며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해 주세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친구도 그 손을 마주 잡아 줄 거예요.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싶은 순간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입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3층 또래 상담부 동아리실이나 또래 상담부 누리집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04

‘동아리 부장’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의 참여자에게 회의의 목적을 상기시키고 있다.
- ② 회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해 정리하고 있다.
- ③ 회의 참여자에게 이어서 논의할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 ④ 회의의 결과에 대한 회의 참여자의 소감을 묻고 있다.
- ⑤ 다음 회의의 화제를 예고하며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05

[A]에 나타난 회의 참여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원 1’은 ‘부원 3’의 질문에 답변하며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정정하고 있다.
- ② ‘부원 2’는 ‘부원 1’이 언급한 해결책이 다른 상황에 더 적절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③ ‘부원 3’은 ‘부원 2’의 의견에 수긍하며 자신의 의견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부원 2’는 ‘부원 3’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기존 생각이 바뀌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⑤ ‘부원 1’은 ‘부원 2’의 질문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하고 있다.

06

(가)에서 언급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동아리 부장’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회의 내용 순서에 따라 글을 구성하고 고민 내용을 소재목으로 제시해야겠어.
- ② 동아리 부원의 진로 탐색 경험과 유사한 또 다른 사연을 추가로 수집해 제시해야겠어.
- ③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한 동아리 부원의 발언을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제시해야겠어.
- ④ 멀어진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제시해야겠어.
- ⑤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또래 상담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겠어.

07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신문 칼럼]

새로운 사람, 사건, 지식 등이 우연히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 ①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자신과 맞는 진로를 선택할 기회를 우연히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② 진로를 선택할 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보다 실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자신의 공부 방법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끈기 있게 노력하다 보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학습 과정에서 우연히 겪는 정체기를 극복하려면 수립한 계획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고 친구의 입장에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08~10]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학생의 초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동네를 떠나 이사 준비를 하며 거실 한구석에 있던 ‘은재의 성장 일지’를 발견했다. 꼬트머리가 누렇게 변한 책자를 펼쳐 보니 나의 어렸을 적 사진과 함께, 엄마의 메모가 눈에 띄었다. ‘유치원 등원 첫날, 씩씩하게 손 흔드는 은재, 언제 저렇게 컸나…….’ 한 글자씩 눌러 적은 메모에서 엄마가 하루하루 커 가는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가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내 수첩이 떠올랐다. 방에 가서 ‘2022년’이라고 적힌, 중학생 때 쓴 수첩을 집어 들었다. 펼쳐 본 수첩 속 달력에는 매일의 주요한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스스로 챙겨야 할 일정이 많아지다 보니 처음에는 쏟아지는 일정에 압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다. ‘오늘, 도서관 책 반납’ 같은 간단한 일정부터 여행 같은 긴 일정까지 하나하나 메모로 써 놓고 보면 앞으로의 일정들을 모두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고 있었다.

일상 속 소중한 추억도 짙막한 메모로 남아 있었다. 3월의 어느 날에 적힌 ‘우쿨렐레 연습, 손가락이 아파, 힘들어.’라는 메모를 보고는 음악 수행평가를 위해 잠 못 이루고 손가락이 퉁퉁 부르듯 때까지 우쿨렐레 연주를 연습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5월의 어느 날에 적힌 ‘우쿨렐레 완벽, 기분 최고!’라는 메모를 보고는 수많은 연습 끝에 곡을 완벽히 연주했을 때의 뿌듯함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내 삶을 차곡차곡 쌓아 둔 추억의 서랍장을 열어, 발전해 온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나 자신이 기특하게 여겨졌다.

수첩 속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민재랑 싸웠다, 민재는 왜 그랬지? 속상해…, 내 잘못도 있지…’라는 메모가 눈에 띄었다. 동생과 다툰 후 동생이 나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 것 같아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썼던 메모였다. 그때 메모를 적으면서, 나는 동생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었고, 내 감정에만 매몰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보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파도처럼 요동치던 나의 마음은, 메모를 하며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물결같이 잔잔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책장 한 칸을 차지한 수첩들에 적힌 메모에는 하루하루 나아지는 나의 모습들이 가득 차 있다. 지금도 메모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08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화를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직유법을 사용하여 내면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 ③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과의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의태어를 사용하여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색채어를 사용하여 소재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9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기 전에 구상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ㄱ~ㄴ 중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1) 처음

○ 엄마의 메모를 발견함. ㄱ

2) 중간

○ 메모를 통해 일정을 계획했던 일.

→ 일정을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김. ㄴ

○ 메모를 통해 추억을 되돌아 본 일. ㄷ

→ 연습으로 발전해 온 나에게 기특함을 느낌. ㄹ

○ 메모를 통해 감정을 추슬렀던 일.

→ 내 감정을 헤아려 준 동생에게 고마움을 느낌. ㄴ

3) 끝

○ 나의 모습을 간직한 메모가 쌓이고 있음.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ㄴ

10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읽은 선생님의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초고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글이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들어. 마지막 문단의 맥락을 고려해서 메모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의인법을 사용한 문장을 추가하면 좋겠어.

- ① 메모는 나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타임머신이다.
- ② 메모하는 습관을 유지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 ③ 메모는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함께 커 가는 내 삶의 소중한 짝꿍이다.
- ④ 메모는 언제나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환하게 밝혀 주는 등대이다.
- ⑤ 메모는 밝게 웃으며 상상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는 친절한 안내원이다.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본용언은 문장의 주어를 주되게 서술하는 용언이고, 보조 용언은 본용언의 의미를 보충하는 용언이다. 보조 용언은 홀로 서술어로 쓰일 수 없으며, 본용언의 뒤에 위치하여 본용언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의미를 덧붙인다.

- ㄱ. 나는 그녀의 그림을 보고 싶다.
 ㄴ. 그녀가 사과를 한번 먹어 보다.

위에서 ㄱ의 ‘보다’와 ㄴ의 ‘먹다’는 주어의 특정한 행위를 주되게 서술하는 본용언이고, ㄱ의 ‘싶다’는 희망의 의미를 덧붙이는, ㄴ의 ‘보다’는 시도의 의미를 덧붙이는 보조 용언이다. ‘보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용언으로, 문장에서 그 쓰임을 잘 구별해서 이해해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의미를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는 다른 문장 성분을 넣거나, 행위나 작용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 ‘-아서/어서’, ‘-고서’를 붙이면 문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읽힌다. 예를 들어 ㄴ의 ‘먹어 보다’에 ‘먹어 아주 보다’와 같이 부사어를 넣거나 ‘먹어서 보다’나 ‘먹고서 보다’와 같이 연결 어미를 붙이면 보조 용언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1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보조 용언만으로 서술어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보조 용언의 바로 앞에 부사어가 올 수 있다.
- ③ 보조 용언은 본용언의 의미를 대체할 수 있다.
- ④ 보조 용언은 본용언 앞에 위치하여 의미를 덧붙인다.
- ⑤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모두 쓰이는 용언이 존재한다.

12

윗글을 참고하여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 오고 가다.
- 이번 생일에는 선물을 ㉡ 받고 싶다.
- 새로운 가수의 노래를 ㉢ 들어 보다.
- 친구가 아프니까 곁에 ㉣ 남아 주다.
-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 열어 놓다.

- ① ㉠의 ‘가다’는 본용언에 진행의 의미를 덧붙이므로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지 않다.
- ② ㉡의 ‘싶다’는 본용언에 희망의 의미를 덧붙이므로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지 않다.
- ③ ㉢의 ‘보다’는 본용언에 시도의 의미를 덧붙이므로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지 않다.
- ④ ㉣에서 ‘남아’를 ‘남아서’로 바꾸어 쓰면 자연스럽게 읽히므로 ㉣의 ‘주다’는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지 않다.
- ⑤ ㉤에서 ‘열어’와 ‘놓다’ 사이에 ‘아주’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읽히므로 ㉤의 ‘놓다’는 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지 않다.

13



〈보기〉에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 자질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의미 자질이란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의미 구성 요소를 말한다. 대립되는 의미 자질은 [+], [-]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의미 자질을 분석하면 의미 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상하 관계에서 하의어는 상의어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상의어의 의미 자질을 모두 가지며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하나 이상 많다.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하나의 의미 자질만 대립되고 나머지 의미 자질은 동일하다.

단어	의미 자질
사람	[+인간]
여자	[+인간], [+여성]
숙녀	[+인간], [+여성], [+성숙]
신사	[+인간], [-여성], [+성숙]
소녀	[+인간], [+여성], [-성인]

- ① ‘사람’의 의미 자질이 ‘숙녀’의 의미 자질에 포함되므로 ‘사람’은 ‘숙녀’의 상의어이다.
- ② ‘여자’의 의미 자질은 ‘사람’의 의미 자질에 [+여성]을 더 갖고 있으므로 ‘여자’는 ‘사람’의 하의어이다.
- ③ ‘소녀’는 ‘여자’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의미 자질의 개수가 ‘여자’보다 많다.
- ④ ‘신사’는 ‘숙녀’와 하나의 의미 자질만 대립을 이루고, 나머지 의미 자질은 같으므로 ‘숙녀’와 반의 관계에 있다.
- ⑤ ‘소녀’는 ‘사람’과 두 개의 의미 자질이 대립을 이루므로 ‘사람’과 상하 관계에 있다.



〈보기〉의 밑줄 친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재귀 대명사는 문장 내에서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3인칭 대명사로, ‘저’, ‘저희’, ‘자기’, ‘당신’ 등이 있다. 한편 명사 ‘스스로’, ‘서로’는 재귀 대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 ㄱ. 정우는 동생에게 자기 사탕을 주었다.
- ㄴ. 막내는 엄마에게 저도 모르게 달려갔다.
- ㄷ. 아이들은 선생님 몰래 저희끼리 속삭였다.
- ㄹ. 할머니께서는 손님을 당신께서 직접 맞이하셨다.
- ㅁ. 신입생에게 선배들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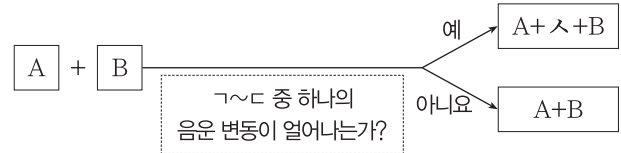
- ① ㄱ: ‘자기’는 ‘동생’을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이다.
- ② ㄴ: ‘저’는 ‘막내’를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이다.
- ③ ㄷ: ‘저희’는 ‘아이들’을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이다.
- ④ ㄹ: ‘당신’은 ‘할머니’를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이다.
- ⑤ ㅁ: ‘스스로’는 ‘선배들’을 나타내는 재귀 대명사처럼 쓰인다.



〈보기〉의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과제’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선생님: 고유어 A, B가 합쳐져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A의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탐구 과정을 참고하여 학습 과제를 탐구해 봅시다.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

- ㄱ. B의 초성이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
- ㄴ. A의 종성에 ‘ㄴ’ 소리가 생기는 경우
- ㄷ. A의 종성과 B의 초성에 각각 ‘ㄴ’ 소리가 생기는 경우

■ 학습 과제: a~e에 들어갈 올바른 표기를 탐구해 보자.

- 비+길 → a [비깎]
- 위+쪽 → b [위쪽]
- 코+날 → c [콘날]
- 이+몸 → d [인몸]
- 배+일 → e [뱃일]

- ① a: ㄱ에 해당하므로 ‘빗길’로 표기해야겠군.
- ② b: ㄱ에 해당하므로 ‘윗쪽’으로 표기해야겠군.
- ③ c: ㄴ에 해당하므로 ‘콧날’로 표기해야겠군.
- ④ d: ㄴ에 해당하므로 ‘잇몸’으로 표기해야겠군.
- ⑤ e: ㄷ에 해당하므로 ‘뱃일’로 표기해야겠군.



ㄱ

- ㄱ **가상**[假 거짓 **가** 像 모양 **상**]
 - 실물처럼 보이는 거짓 형상
 - 예 이 영화는 **가상**의 세계를 생생하게 표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 ㄱ **가치판단**[價 값 **가** 值 값 **치** 判 평가할 **판** 斷 끊을 **단**]
 -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개입되는 판단. 주로 진, 선, 미 따위의 가치 일반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위의 판별이 쉽지 않다. 이를테면 '이 꽃은 아름답다.'나 '철수는 착하다.'와 같은 판단이 이에 속한다.
- ㄱ **간결**[簡 대쪽 **간** 潔 깨끗할 **결**]하다
 - 간단하고 깔끔하다.
 - 예 나는 검소하고 **간결**하게 살고 있다.
- ㄱ **간주**[看 볼 **간** 做 지을 **주**]되다
 -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지다.
 - 예 오늘날 과학은 의심할 바 없는 진리로 **간주**되고 있다.
- ㄱ **감상**[鑑 거울 **감** 賞 상줄 **상**]하다
 - 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여 즐기고 평가하다.
 - 예 나는 미술관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를 **감상**했다.
- ㄱ **강요**[強 강할 **강** 要 중요할 **요**]하다
 -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하다.
 - 예 모든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다.
- ㄱ **개방**[開 열 **개** 放 놓을 **방**]하다
 - 문이나 어떠한 공간 따위를 열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하게 하다.
 - 예 방학 중에도 도서관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ㄱ **개선**[改 고칠 **개** 善 착할 **선**]되다
 -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가 고쳐져 더 좋게 되다.
 - 예 도서관에 에어컨이 새로 설치되면서 학습 환경이 **개선**되었다.
- ㄱ **결부**[結 맺을 **결** 付 줄 **부**]되다
 -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연관되다.
 - 예 주변 환경과 범죄 발생률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 ㄱ **경향**[傾 기울 **경** 向 방향 **향**]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 예 그 작가의 신작은 예전의 작품과는 달리 상업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
- ㄱ **공감각적 심상**
 - 하나의 감각이 동시에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일어나는 심상

나는 향기로운 남의 말소리에 귀먹고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후각화)
- 한용운, <남의 침묵>

- ㄱ **관련**[關 빚장 **관** 聯 잇닿을 **련**]하다
 -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계를 맺어 매여 있다.
 - 예 이번 조사에서 새로 드러난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ㄱ **괴다**
 -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아래를 받쳐 안정시키다.
 - 예 균형이 맞지 않는 의자 다리 밑에 종이를 접어 **괴어** 놓았다.
- ㄱ **구사**[驅 몰 **구** 使 부릴 **사**]하다
 - 말이나 수사법, 기교, 수단 따위를 능숙하게 마음대로 부려 쓰다.
 - 예 그는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 ㄱ **구체화**[具 갖출 **구** 體 몸 체 化 될 **화**]하다
 - 구체적인 것으로 되다. 또는 그렇게 만들다.
 - 예 회의를 통해 다음 일정을 **구체화**했다.
- ㄱ **구축**[構 엮을 **구** 築 쌓을 **축**]하다
 - 체제, 체계 따위의 기초를 닦아 세우다.
 - 예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 수 있는 고속도로망을 **구축**했다.
- ㄱ **구현**[具 갖출 **구** 現 나타날 **현**]하다
 -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하다.
 - 예 토론과 설득은 민주 정치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 ㄱ **구획**[區 구역 **구** 劃 새길 **획**]하다
 - 토지 따위를 경계를 지어 가르다.
 - 예 도시를 동서남북의 4면으로 **구획**하다.
- ㄱ **국한**[局 판 **국** 限 한계 **한**]하다
 -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하다.
 - 예 구매 후보지를 같은 지역 내의 업체로 **국한**하지 않기로 하였다.
- ㄱ **극단적**[極 지극할 **극** 端 바를 **단** 的 과녁 **적**]
 - 중용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것
 - 예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흐르면 이기주의가 된다.
- ㄱ **근소**[僅 겨우 **근** 少 적을 **소**]하다
 - 얼마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적다.
 - 예 우리는 상대방을 **근소**한 점수 차이로 간신히 이겼다.
- ㄱ **기민**[機 틀 **기** 敏 민첩할 **민**]하다
 - 눈치가 빠르고 동작이 날쌔다.
 - 예 나와 동생 사이의 긴장을 눈치챈 엄마는 **기민**한 움직임으로 방을 나가셨다.
- ㄱ **기반**[基 터 **기** 盤 소반 **반**]
 -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 예 실화에 **기반**을 둔 영화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 ㄱ **기여**[寄 부칠 **기** 與 더불어 **여**]하다
 -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
 - 예 꾸준히 했던 연습이 우리 반이 체육대회에서 우승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ㄴ

- ㄴ **난해**[難 어려울 **난** 解 풀 **해**]하다
 -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 예 그 작가의 시는 **난해**하기로 유명하다.
- ㄴ **낭송**[朗 밝을 **낭** 誦 읽 **송**]하다
 - 크게 소리를 내어 글을 읽거나 외다.
 - 예 나는 수업 시간에 자작시를 친구들 앞에서 **낭송**하였다.
- ㄴ **내재**[內 안 **내** 在 있을 **재**]하다
 -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다.
 - 예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마음에 항상 **내재**하고 있다.
- ㄴ **냉각**[冷 차를 **냉** 却 물리칠 **각**]하다
 - 식혀서 차게 하다.
 - 예 이산화 탄소를 일정 온도 이하로 **냉각**하면 드라이아이스가 된다.
- ㄴ **남용**[濫 넘칠 **남** 用 쓸 **용**]
 -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씀.
 - 예 정부는 의약품 **남용**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ㄷ

- ㄷ **달성**[達 통할 **달** 成 이룰 **성**]하다
 - 목적한 것을 이룬다.
 - 예 한 주에 두 번은 달리기를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 ㄷ **당면**[當 마땅할 **당** 面 낮 **면**]하다
 - 바로 눈앞에 당하다.
 - 예 지금 당장은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 ㄷ **당위성**[當 마땅할 **당** 爲 할 **위** 性 성질 **성**]
 -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성질
 - 예 기미 독립 선언서는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가득하다.
 - ㄷ **대구법**
 -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을 맞추어 배치하는 표현 방법
-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 대구법
- 송순, <면앙정가>
- ㄷ **대비**[對 대답할 **대** 備 갖추 **비**]하다
 -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다.
 - 예 태풍에 **대비**하여 담장을 튼튼하게 고정하고 생필품을 미리 구입했다.
 - ㄷ **대응**[對 대답할 **대** 應 응할 **응**]하다
 -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다.
 - 예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대응**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